왜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차별할까요? (1000자 내)

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합니다. 사실 전 살아가면서 차별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저라는 사람은 차별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차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,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들이 사실은 차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제 경험담을 얘기해보자면, 저희 가족은 할머니 댁에 종종 놀러갑니다. 저희 가족은 식사 후 가위바위보로 설거지 당번을 정하는데, 설거지를 오빠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할머니께서 늘 “여자가 셋인데 남자를 시키냐”, “차라리 내가 하겠다” 라고 말씀하십니다. 저는 할머니의 이 행동이 차별이라고 생각했고, 할머니께 따졌습니다. ‘그럼 여자인 저희들이 하는 건 좋으시냐’ ‘왜 여자만 설거지를 해야 하나’… 할머니께선 말씀이 없으시더니 ‘그럼 내가 하겠다’ 라고 하셨습니다. 저는 화가 났습니다. 하지만 어른들께서 이럴 땐 나서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.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인생이 있다고. 그분의 인생에선 이게 정답이었는데 네가 이러는 게 옳지 않다고. 전 생각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옳을까.

하지만 제가 생각한 결론은 오히려 옳음을 찾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별 자체를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입니다. 차별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고,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선입견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차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득해서, 어떻게 납득을 시킬 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설득해서 안되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인정한다.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.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. 이해가 안 될 때 인정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진다. 따라서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속앓이는 사라진다. 이게 제 결론입니다.